PRESS 001

보도자료 1 즉시 보도 가능 2026년 11월 18일

큰돈은 가족이 함께 '도장' 찍어야 나간다… 패밀리월렛, 가족·모임용 공동 가상자산 지갑 공개

- 내 코인은 개인 지갑에, 함께 관리할 자산은 공동금고에…두 잔액은 절대 합치지 않는 '두 층 구조'
- 암호 쪽지 없이 시작하고 휴대폰을 바꿔도 되찾는 설계, 상속·승계 절차까지 미리
- BNB 체인·USDT 기반으로 설계, 웹 데모(familywallet.cc) 공개



01 세 세대의 손이 도장 하나를 함께 누른다. 패밀리월렛 공동금고의 큰돈은 정해진 구성원의 도장(승인)이 모여야 나간다. (연출 이미지)

한눈에 보기

01 가족·모임이 목적별 '공동금고'를 만들고, 큰돈은 정해진 인원이 각자의 휴대폰에서 도장(승인)을 찍어야 나가는 합의형 지갑

02 외워야 할 암호 쪽지(니모닉) 없이 시작하고, 휴대폰을 잃어도 가족 확인과 안전 대기를 거쳐 되찾도록 설계

03 지금 familywallet.cc 웹 데모에서 실제 돈 없이 개인 지갑·공동금고·두 사람의 도장 승인을 직접 체험 가능

패밀리월렛(FamilyWallet)이 가족과 모임이 함께 쓰는 공동 가상자산 지갑 '패밀리월렛'을 공개하고, 누구나 실제 돈 없이 지갑 구조와 승인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웹 데모(familywallet.cc)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패밀리월렛은 내 코인은 개인 지갑에, 함께 관리할 자산은 '공동금고'에 나눠 담고, 공동금고에서 큰돈이 나갈 때는 미리 정한 구성원이 각자의 휴대폰에서 '도장'을 찍어야 송금이 실행되는 합의형 지갑이다.

코인 보유자 7억 4천만 명, 그런데 지갑은 아직 '1인용'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는 2025년 약 7억 4천만 명으로 추정된다(Crypto.com).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 곧 스테이블코인을 매달 실제로 쓰는 사람도 4,700만 명에 이른다(Visa). 코인이 '투자 상품'에서 '생활의 돈'으로 옮겨 가고 있지만, 지금의 지갑은 대부분 한 사람이 12개 낱말로 된 암호 쪽지(니모닉)를 혼자 지키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는 쪽지를 잃거나,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열쇠를 아는 단 한 사람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 자산이 그대로 잠긴다.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전체 비트코인의 11~18%가 이렇게 영구히 잠긴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의 한 남성은 개인 키가 든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버려 약 8,000 BTC를 잃었고, 캐나다 거래소 쿼드리가CX는 콜드월렛 비밀번호를 혼자 알던 대표가 숨진 뒤 고객 자산을 찾지 못하고 파산했다. 모두 해킹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곳에, 혼자" 보관해서 생긴 일이다.

가족이 함께 돈을 모으고 쓰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생활비·용돈·여행 저금·모임 회비를 코인으로 함께 관리하려면 한 사람에게 모든 열쇠를 맡기거나, 암호 쪽지를 복사해 나눠 갖는 위험한 방법밖에 없었다.

패밀리월렛이란 — 혼자 쓰는 돈은 빠르게, 함께 쓰는 돈은 함께

패밀리월렛은 한 지갑 안에 두 층을 둔다. 1층은 개인 지갑이다. 혼자 쓰는 자산은 가족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내 결정으로 바로 받고 보낸다. 2층은 공동금고다. 가족이나 모임이 '우리 집 생활비', '여행 저금', '동창회 회비'처럼 목적별로 금고를 만들고, 참여할 사람과 필요한 승인 수를 정한다. 두 잔액은 절대 합쳐서 보여 주지 않는다. 공동금고를 만들어도 내 개인 지갑과 결정권은 그대로 남는다.

공동금고에서 돈을 보내려면 먼저 송금안을 만든다. 받는 사람·자산·금액·목적이 한 화면에 정리되고, 금고 규칙이 "3명 중 2명 승인"이라면 두 사람이 각자의 휴대폰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서명 키로 '도장'을 찍어야 송금이 실행된다. 한 사람의 열쇠를 여러 명이 나눠 쓰지 않고,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는 모두에게 같은 기록으로 남는다.

패밀리월렛이 좋은 여섯 가지 이유

01 **큰돈은 함께, 작은 돈은 빠르게.**
금액에 따라 바로 나가는 돈과 도장이 모여야 나가는 돈을 나눠, 편리함과 안전을 함께 챙긴다.

02 **암호 쪽지 없이 시작.**
외워야 할 쪽지 대신 지문·얼굴 인증과 이메일로 시작하는 경험을 목표로 한다.

03 **휴대폰을 잃어도 되찾는 설계.**

텔레그램 계정·기기·복구 이메일·복구 문구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로 새 휴대폰에 지갑을 다시 세운다.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산 이동이 잠기고 가족 모두에게 알림이 가며, 이상하면 누구든 멈출 수 있다.



02 저녁 식탁에서 휴대폰 하나로 송금안을 함께 확인하는 가족. 공동금고에서는 모두가 같은 내용을 보고 각자의 기기에서 승인한다. (연출 이미지)

04 **상속과 승계까지 미리.**

후견 구성원, 장기 미접속 알림, 생활비 한도만 여는 '돌봄 모드'를 정해 두면, 가족 중 누군가 오래 자리를 비워도 남은 가족이 정한 절차대로 자산을 이어 관리할 수 있다. 기술적 승계이며 법적 상속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05 **회사도 못 옮기는 돈.**

사용자가 각자의 서명 키를 갖는 비수탁 구조를 지향하고, 운영사 관리자 화면에는 자산을 옮기는 버튼 자체가 없다.

06 **생활 언어로 된 가족 가계부.**

기술 용어보다 생활비·용돈·여행 저금이 먼저 보이고, 누가 왜 얼마를 썼는지 메모와 영수증이 남는 가족 가계부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왜 지금인가

첫째, 돈의 쓰임이 바뀌었다.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섰고(Visa, 2025), 2024년 저·중소득국으로 보낸 가족 송금은 6,850억 달러에 이른다(세계은행). 가족이 함께 모으고 보내는 돈이 디지털 달러로 옮겨 가는 지금, 그 돈을 함께 지킬 도구가 필요하다.

둘째, '맡기는 것'의 위험이 커졌다. 2025년 2월 대형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등 큰 거래소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한다. 남에게 맡기지 않으면서도 혼자 짊어지지 않는 방법, 곧 믿는 사람들과 열쇠를 나눠 쥐고 함께 지키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기술이 쉬워졌다. 패밀리월렛은 BNB 체인과 USDT(BEP-20)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 메타마스크·트러스트월렛처럼 많은 사람이 이미 쓰는 지갑과 같은 방식이고, 큰 거래소에서 USDT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적고 몇 초면 송금이 끝난다. 공동금고의 승인 규칙은 BNB 체인의 공개 다중서명 계약을 기준으로 설계해, 승인 인원과 구성원 변경 합의를 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BTC·ETH 등 다른 자산은 다음 단계로 넓혀 갈 계획이다.

넷째, 빈자리가 있다. 다중서명 지갑은 대부분 기업·전문가용이고, 가족을 위한 다중서명 서비스는 연회비가 비싼 회원제가 많다. 쉬운 지갑은 1인용에 머문다. "함께 쓰면서, 생활 언어로 말하는 지갑"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

패밀리월렛은 현재 웹 데모(familywallet.cc)를 공개했다. 실제 가상화폐를 입금하거나 옮기지 않고도 개인 지갑과 공동금고의 구조, 두 사람이 도장을 찍어 합의가 완성되는 흐름을 직접 눌러 볼 수 있다. 화면에 나오는 자산과 잔액은 예시다.

가족 초대와 알림은 이미 쓰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시작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정식 서비스는 온체인 실행과 복구에 대한 검증, 보안 점검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지원 국가·자산·요금은 정식 출시 때 안내한다.

패밀리월렛 관계자는 "종이도, USB도, 휴대폰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가족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며 "패밀리월렛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합의에 묶어 두는 지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인을 어떻게 보내죠?'라고 묻게 만드는 지갑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돈에서 보낼까요?'라고 묻는 지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03 패밀리월렛 마스코트 '스탬피'. 승인 경험을 안내하는 디지털 도장 캐릭터다. (이미지 제공=패밀리월렛)

숫자로 보기

7.41억 명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 (2025년 추정)
CRYPTO.COM

11~18%
영구히 잠긴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비율
CHAINALYSIS

4,700만 명
스테이블코인을 매달 실제로 쓰는 사람
VISA · 2025

6,850억 달러
저·중소득국으로 보낸 가족 송금 (2024년)
세계은행

- 끝 -

패밀리월렛 소개

패밀리월렛(FamilyWallet)은 가족과 모임이 함께 쓰는 합의형 가상자산 지갑이다. 혼자 쓰는 개인 지갑과 함께 관리하는 공동금고를 나누고, 공동금고의 큰돈은 정해진 구성원의 도장(승인)이 모여야 움직이도록 설계했다. 각자의 서명 키를 갖는 비수탁 구조, 암호 쪽지 없는 시작, 휴대폰 교체 복구, 상속·승계 절차, 가족 가계부를 핵심으로 한다. 마스코트 '스탬피'가 승인 경험을 안내한다.

웹사이트 familywallet.cc

웹 데모 familywallet.cc

참고

- 현재 공개된 화면은 데모이며 실제 가상화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 복구·승계 기능과 온체인 실행은 출시 전 검증 중인 설계로, 정식 출시 때 바뀔 수 있습니다.
- 기술적 승계는 나라별 법적 상속 절차나 유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서비스 소개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 숫자 출처: Crypto.com(2026년 1월 발표, 2025년 추정), Chainalysis 추정, Visa(2025), 세계은행(2024). 바이비트 사건은 2025년 2월 공개 보도 기준입니다.